

6% 넘어선 금리에 차주들 아연실색... 줄줄이 상환 러시

5대은행 가계대출 7개월 연속 감소
7월 기준 697.8조... 한달 새 1.8조 ↓
“지속인상 전망 등 상환심리 강해져”

금리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돌파했다. 차주는 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적극 나서면서 가계대출 감소세가 7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7월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7조8542억원으로 지난 6월 말 699조6521억원에서 1조7979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올 1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 기간 11조1987억원 줄었다.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529억원이다.

대출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331억원 감소한 506조3383억원으로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1조2130억원 감소한 129조465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조1204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은 133조1627억원으로

간편하고 넉넉한
퍼스트전세보증론 전세자금대출
최저 연 **2.87%** ~ 최고 연 **4.17%**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2566억원 늘었다.

◆주담대·신용대출 규모 감소

전세대출을 제외한 신용과 주담대는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금리가 6%를 넘어가면서 차주들은 ‘돈부터 갏자’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간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DSR 규제가 적용됐지만 지난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강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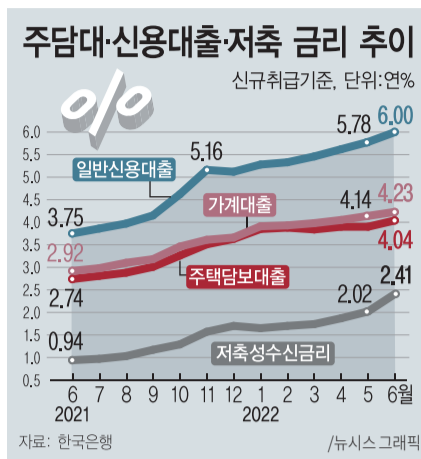
5대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87~6.22%로 전년 동월(2.46~3.87%) 대비 상단이 2.35%포인트(p) 올랐다.

통상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판매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 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속하게 오르면서 전세대출 금리를 상승시켰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기준 코픽스 금리를 2.38%로 전월 대비 0.4%p 올렸다. 한은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 충격이 반영되는 7월 코픽스가 오는 8월 15일 발표되면 전세대출 금리는 7%에 육박할 것이라 분석이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2013년 8월(연 6.13%) 이후 8년 10개월 만에 연 6%대로 진입했다.

5대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91~5.66%로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 상



단이 연 6.29%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지난 13일 빅스텝 단행에 이어 8월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신용대출 금리 역시 조만간 7% 선을 뚫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담대 금리는 하락세에 돌입했다. 5대 은행 주담대 고정 금리는 지난 7월 28일 4.04~6.028%로 지난 13일(4.27~6.144%) 대비 상단과 하단이 모두 내렸다. 특히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개 은행에서 모두 내렸다.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이자 장사’ 경고를 쏟아지자 가산금리를 줄이거나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 급증

시장에서 금리가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당국 역시 비상이 걸렸다. 이자가 연 7% 돌파할 경우 부실노권이 터질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르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190만명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여파는 금융권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쳐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가 연 2.75%까지 오르면 지난해 8월 말 대비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연 148만원 늘어난다고 밝히면서 차주들의 부담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금리가 워낙 높아지다보니 대출부터 상환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며 “여기에 대출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DSR이 강화되면서 효과가 반감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채무불이행 가구가 늘어나고 장기회할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분기 실적 엇갈린 배터리3사... 하반기 전망, 다같이 ‘맑음’

삼성SDI 영업이익 4000억 돌파
상반기 최대실적... 질적성장 지속

LG엔솔 전년동기비 영업이익 감소
고객사 신차 출시 등 매출 성장 예상

SK온 전분기비 영업손실 532억 ↑
해외공장 가동 본격화... 수익성 개선



삼성SDI 기흥사업장 전경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 /LG에너지솔루션



미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SK온 배터리 2공장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으로 대표되는 K-배터리 3사가 2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이 중 유일하게 삼성SDI만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해냈다. 희비는 엇갈렸지만 3사 모두 3분기 매출 전망을 밝게 예측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SDI ‘미소’, LG엔솔·SK온 ‘우울’

31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최초로 영업이익 4000억원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상반기 실적 역대 최대이기도 하다. 삼성SDI는 2분기 실적으로 매출 4조7408억원, 영업이익 429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2.2%(1조4065억원) 증가한 수치며, 영업이익은 45.3%(1338억원) 증가했다.

삼성SDI는 컨퍼런스콜에서 “배터리 분야에서 전 분기와 비교해 중대형 전지는 매출이 증가했고 수익성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동차 전지는 견조한 수요 성장을 이루며 ‘Gen.5(젠5)’와 같은 고부가제품 판매가 확대됐다.

삼성SDI는 “전기대비 EV 매출액은 30% 증가했으며 이 중 10%포인트는 판매가 상승 및 환율 등에 기인한 것”이

라며 “원화 약세는 손익에는 긍정적이지만 소재 구입비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삼성SDI의 2분기 실적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지 판매 확대에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형 전지 부분도 원형 전지를 중심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올랐다. 전자재료 부문은 전 분기와 비교해 고부가 제품 확대에 수익성을 확대했다. OLED 소재는 신규 플랫폼향으로의 공급이 시작돼 매출을 확대했고, 반도체 소재는 전 분기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매출 5조706억원, 영업이익 1956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하락했다. 매출액은 전기대비 16.8% 증가한 모습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24.4%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수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컨퍼런스콜에서 ▲코로나19인한 중국 봉쇄조치 ▲글로벌 물류대란 ▲메탈 원가 상승분 판가 인상 적용 시점 차이 등을 실적 하락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SK온의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 1조2880억원, 영업손실 규모는 3266억원이

다. 매출은 지난 1분기 대비 281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규모가 532억 늘어난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은 컨퍼런스콜에서 “배터리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일부 판매물량 감소에도 신규 공장 가동과 판매단가 상승 등으로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281억원 증가했다”라며 “영업손익은 판매물량 감소와 유럽지역 동력비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이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3사, 3분기 실적개선 본격화

고환율·고금리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배터리 3사 모두 하반기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5년 내 연 매출 3배 이상 성장,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사업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연 매출 목표도 22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초 발표한 연 매출 목표 19조2천억 원보다 2조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하반기는 주요 고객사의 신차 출시, GM과의 JV 1기 본격 가동, 주요 거래선 수요 확대에 따른 물량 증가, 원자재 가격 평가 연동 효과 등으로 상반기 대비 의미 있는 매

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K온도 하반기 미국 조지아 1공장과 헝가리 2공장 등 신규 공장 수율 안정화와 중국 연청 2공장 가동 등을 통해 외형성장이 지속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배터리와 소재부문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8조 원 가까이 투자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이미 투입된 금액을 포함해 20조 원을 배터리와 소재부문에, 그린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실적 고저와 관계없이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온은 4분기에 분기 기준 흑자 전환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SDI는 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기존 노선을 이어간다. 하반기도 사업분야별 수요 변화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손미카엘 부사장은 “고용량 신제품은 하이네켈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를 양극재에 적용해 용량을 약 30%가량 높였고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 원가를 약 15% 수준 낮출 수 있다”며 “차별화된 소화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해 전력용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1면 ‘공기관 이변엔...’서 계속

혁신계획 평가지표 신설 임직원 보수 엄격 관리

정부는 오는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내달 초 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전 정부에선 고용 등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뒀다면, 새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방안 경영 개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정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과 경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관 유사·중복 기능은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루션을 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안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